

“물고기 해일 스트레스 양식어류 무더기 폐사”

어민들 “우럭·전복 등 1억3천만원 손실”

전남 해안에 최근 해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가두리 양식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우럭 등 양식 어류들도 높은 파도로 비늘이 벗겨지는 등 각종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신안군과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3일 동안 최고 5m에 달하는 해일 수준의 높은 파도가 계속 밀어닥치면서 가두리 양식장 파손이 잇따랐다.

어민들은 이에 따라 양식중이던 우럭 10만 마리와 전복 3만 마리 중 일부가 유실되거나 폐사되는 등 1억3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어민들은 특히 좁은 공간에서 양식되는 우럭의 경우, 파도가 높아 일 때마다 시설물에 부딪혀 비늘이 벗겨지거나, 충격에 따른 스트레스로 폐사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흑산 수협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는 양식장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하지만, 높은 파도로 인한 각종 부작용으로 우럭이 폐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해 어민들의 주장에 뒷받침했다.

그러나 남해수산연구소 황묘 연구사는 “가두리 양식장 시설물과 양식어류가 높은 파도로 물리적 충돌을 하면서 비늘 등이 벗겨져 폐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지만, 객관적인 증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황 연구사는 “법원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자연재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해온 경우도 있지만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안군 한 관계자는 “어민들이 연일 계속된 높은 파도로 양식어류가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했다는 주장은 하고 있다”며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일면 수금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님기자 wncho@

보성삼베 명성 재현 박차

郡, 10억 투입 웰빙관 설치·지리적표시 추진 등

보성군이 보성삼베의 명성 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군은 보성 대마(삼베)를 이용한 산업화 육성사업이 농림부의 향토산업에 선정됨으로써 대마(삼

베)웰빙관 설치사업, 대마축제(삼베페스티벌), 보성 대마관련 상품개발 등에 3개년에 걸쳐 총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보성군은

향토지원인 삼베(대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삼(삼베)건조장 및 작업장 설치사업, 보성삼베의 지리적 표시 등록과 단체표장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보성삼베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지난 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신청, 현지심사를 앞두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jahn@

보성군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의·식·주 생활에서 환경호르몬에 대항할 유일한 식물로서 대마가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의(壽衣)산업에만 치중돼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삼베산업 육성으로 보성삼베의 새로운 산업화·세계화의 발판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20㏊에서 대마를 재배, 4천649필(한필은 폭 2자(60cm), 길이 6자(180cm)를 의미)의 삼베를 생산하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jahn@



영광소방서 ‘사랑의 집짓기’

화재로 살곳 잃은 이재민 도와

영광소방서(서장 박병주)가 화재로 살 곳을 잃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사랑의 집짓기’ 행사를 전개한다. <사진>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유광종(44)씨 주택이 불에 타 노동을 비롯 온 가족 6명이 불에 휩싸여 사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유씨는 몸이 불편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도시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돌아왔으나 재작년엔 폭설로

인해 화훼 시설하우스가 파손된데 이어 이번엔 화재까지 발생,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영광소방서는 유씨를 돋기 위해 이불과 가스레인지, 쌀 등의 긴급구호품을 전달하고, ‘사랑의 집짓기’ 행사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불길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사랑의 집짓기’ 행사를 전개한다.

불길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사랑의 집짓기’ 행사를 전개한다.

한편, 영광소방서는 불길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화재 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순천시청별관 업무 16일부터 장천동서

순천시청별관이 오는 16일 장천동으로 옮겨 업무를 시작한다.

장천동 44-1번지에 위치한 순천시청별관은 지상 1층·지하 7층 건물로 지상 1층에 주민생활 지원과 여성가족과, 2층엔 문화원, 3층엔 평생학습지원과와 도로과가 각각 들어선다.

또 4·5층엔 대회의실, 6층엔 생활지원과와 건축과, 문화예술

과, 7층엔 도시과와 도시개발사업소, 공원녹지관리소가 각각 들어서며,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쓰인다.

순천시는 청사가 비좁아 그동안 시청 인근의 9층 건물을 임대, 사용하며 월 1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왔으나, 최근 장천동 7층 건물을 경매로 매입해 리모델링을 미쳤다.

한편 전남장애인체육대회는 매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리고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전남장애인체전 내년 영광군 개최

내년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4월 영광군에서 열린다.

내년 대회는 육상과 배드민턴, 탁구, 수영, 배구, 역도, 사격과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구기 종목인 보치야, 골볼, 롤볼 등 기존의 10개 종목에 10여 개 종목이 추가되고 기간은 1박 2일에서 3박 4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전남장애인체육대회는 매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리고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이꽃이 무궁화란다

립운동가이다.

제 62주년 광복절을 맞아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에 위치한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에 무궁화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함평 출신인 일강(一江) 김철(1886~1934)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및 임시 의정원 의원 등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호남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외달도 해수욕장 ‘바가지 상흔’

민박·생필품값 등 2배 이상 … 위생관리도 엄망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이 바가지 요금과 약취 등으로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다.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외달도에는 피서인파가 몰리고 있으나 여름철 대목을 노린 상인들의 ‘바가지 상흔’이 유행해 사라지지 않고 있다.

2인실 기준 하루 3만원인 민박촌에서는 6만원은 기본이고 방을 구하기 힘든 주말에는 최고 10만원까지 받고 있다. 각종 생필품도 2배 이상 비싼 가격을 받고 있으며 아이스크림의 경

이처럼 바가지 상흔과 불결한 위생 관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피서지 흥보에만 열을 올릴 뿐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목포시의 무책임 행정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지방 조례를 제정하고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외달도에는 이달 들어 피서객이 급증해 하루 평균 1천300여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조합원·농업인 건강증진

곡성농협, 무료 한방진료

곡성농협(조합장 배기섭)은 지난 10일 새농촌 새농협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원로 조합원 및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는 7기 장수대학생 107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동신대 한방병원 의료진 6명을 초빙, 실시됐다.

또한 이날 곡성농협 주부대학 자원봉사자들이 음료 및 다과를 준비하여 봉사 활동을 펼쳤다.

한편 곡성농협은 조합원을 위해 매년 무료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전남도내 해수욕장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

예년보다 일주일 늦춰

피서객 370만명 예상

전남도 내 해수욕장이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전남도는 13일 “막바지 피서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해남 신지 해수욕장 등 전남도 내 주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해수욕장은 예년의 경우 8월20일께 폐장해왔다.

지난해보다 20여 일 빠른 지난 6월2일 첫 개장한 전남지역

해수욕장에는 현재까지 48개의 해수욕장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여만 명이 늘어난 370여만 명의 피서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랑의 텐트촌 설치, 기업체 임직원 하계 휴양소 유치, 해양레포츠 무료 체험 행사 개최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힘입어 전남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다”며 “막바지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장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

서해안 피서객 14% 줄었다

올 108만 … 게릴라성 호우·기상악화 탓

서해 해경청은 특별 수송기간 서해 해경청과 목포·완도·군산·태안 등 4개 해양경찰서에 특별 수송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여객선, 도선 주요 기항지와 선착장에 경찰관 등 안전 관리 요원 2천600여 명을 집중 배치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짚·풀 공예품

공모 합니다

농기원, 내달부터 접수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짚과 풀을 이용해 만든 공예품을 공모한다.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작한 것으로 형태나 규격은 제한이 없으며 출품 수량은 1인 1 작품으로 제한된다. 특히 작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작품설명서에 제작과정 및 완성품 사진 3매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참가 신청서는 제6회 대한민국박람회 홈페이지(www.koreaagriexpo.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우수작품은 시상과 함께 오는 10월 24일부터 6일간 열리는 ‘제 6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기간중에 전시된다. 문의 (061-330-2775)

/송기동기자 song@



13일 노관구 순천시장을 비롯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114’ 브랜드 택시 발대식이 열렸다.

‘최고의 장비·친절로 모십니다’

순천 ‘택시114’ 브랜드 발대

첨단 네비게이션 장치와 최고의 친절로 무장한 브랜드 택시가 순천시에서 운행된다.

순천시 개인택시 지부는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택시114’ 브랜드를 개발, 지난 13일부터 운

행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수신자부담 번호인 1544-1414로 전화하면 별도의 요금부담없이 신속히 ‘택시 114’ 브랜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시 지부 관계자는 “현재 70대인

‘택시114’ 브랜드 택시에는 네비게이션과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첨단장비 그리고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한 카드단말기가 장착됐다. 또 운전자들도 모두 산뜻한 색상의 제복으로 복장을 통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